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김 지 훈*

I.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 유학의 이동성

“이삼(2,3), 이삼(2,3)”.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유학을 연구한 강윤희 교수가 현지 조사 중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싱가포르에서의 조기 유학의 “공식”으로 꼽은 말이다¹⁾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유학을 시작해서 2년 혹은 3년간 머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미이다.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기유학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적지 않은 조기유학 가족을 곁에서 접해온 본 연구자도 충분히 끄덕여지는 표현이다.²⁾ 이 글은 부분적으로는 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1-332-B00342)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jhkim@inha.ac.kr

1) 강윤희, “싱글리쉬? 글로비쉬? 아시아적 세계인?: 싱가포르 내 한국 조기 유학 이주자들의 언어태도와 정체성”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 2012년 3월 31일.

2) 본 연구자는 2006년 싱가포르의 조기유학생을 비공식적인 관찰을 통해 처음 본격적으로 접하였다. 본 연구자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일부 조기유학생들이 영어 습득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관찰함으로써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1999년-2002년, 2006년-2007년의 기간 동안 총 4년 반 정도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였으며, 2002년 후반부터 2009년까지 매년의 상당 기간을 영국과 미국에서 나누어 거주했다.

“이삼, 이삼”이라는 적어도 싱가포르 혹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상적일 수 있는 조기유학의 공식을 택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가에 대해 다룬다. 다시 말해, 조기유학의 이동성(mobility)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탐색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07년에 면접 조사한 싱가포르의 조기유학 가족 집단(Kim, 2010)을 약 5년 후 시점에 다시 만나는 추적조사(follow-up study)를 통해 조기유학 가족의 그간 이동 궤적(trajectory)을 살펴보고 조기유학의 “이동성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인이 태어나서 거주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는 것이 주된 이주의 유형이었던 과거 이민자들과 달리, 현대의 초국적 이주자들(transnational migrants)은 출신 국가와 거주 국가 모두에 상당할 정도로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Schiller et al. 1992, Basch et al. 1994, Vertovec 1999).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출신의 조기유학생 가족(Chiang 2008, Ho and Bedford 2008, Waters 2002, 2005)이나 한국의 조기유학생 가족의 이동 궤적이나 가족 전략을 살펴보면(Kim 2010, Kim forthcoming), 과거의 이주자처럼 단순히 한 방향의 이주를 하지 않는 초국적 이주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flexible) 초국적 이주자의 초국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시각인 초국적 이주 접근(transnational migration approach)을 채택하여 조기 유학 가족의 이주 궤적을 이해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소위 ‘기러기 가족’은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중산층 조기유학 가족과는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Kim 2010, Kim forthcoming). ‘기러기’의 ‘원조’격인 홍콩, 대만에는 한국의 기러기 가족과 유사한 “우주비행사 남편(astronaut husband)”, “낙하산 자녀(parachute children)”, “인공위성 가족(satellite families)”이

존재한다(Ho 2002, Waters 2002, 2005, 2009, Zhou 1998). 이들의 다수는 이주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자녀의 유학 기간을 최소한 자녀의 초중등과정 종료까지 혹은 대학과정 종료까지 고려한다. 아울러 가능한 경우, 거주하는 이주국가의 영주권의 획득과 주택의 구입 등을 포함한 “이민”의 요소를 결합하여, 이주국가에서의 영주적인 체류는 물론 자녀의 대학교육 종료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의 제2차 이주도 고려 혹은 계획한다(Kim 2010, Waters 2009). 바로 이 지점에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의 추구가 조기유학과 결합하는 것이다(Ong 1999, Waters 2009). 우리는 이를 “장기 이주형 조기유학” 유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유학 기간, 체류 신분과 이주 과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장기 이주형 조기유학” 유형과 1-2년 정도의 비교적 중·단기적인 유학을 목표로 출국하여 초중등학교 과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이수한 후 귀국하여, 향후 한국의 중등과정의 학업이나 대학 진학에서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기 이주형 조기유학”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2010, 성정현·홍석준 2013).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를 고려할 때, 조기유학(보다 폭 넓게는 교육이주)이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라 할지라도 “유학”에만 방점을 두기보다는 이주의 한 형태로 접근하면서 이주 과정과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Kim 2010, 이영민·유희연 2008). 유학 이후 유학국가 혹은 제3의 국가에서의 취업 등을 통한 정착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 유학이 또 다른 연속적인 이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주 과정의 다른 시점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 등과의 결합을 포함하는 연쇄 이주(chain migration)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학을 이주의 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이주의 유형

과 방식 그리고 다른 이주 유형과 결합하는 교육이주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다면 한국의 기존 연구가 흔히 초점을 맞추어온 “유학” 경험뿐만 아니라 “이주” 과정과 유형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는 이론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연구 문헌에서 교육이주 가족은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Bryceson and Vuorela 2002, Kim 2010: 277, Lee and Koo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녀의 조기 교육만을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가족 차원의 다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이주와도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조사도 필요하며 아울러, 유학생 혹은 학부모 개인 일방만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분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어 잘하는 엄마, 재력이 되는 아빠”가 조기유학 가족의 필요조건이며 “후기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상류층과 “중산층 가족의 전략”이라는 조은(2004: 159-163)의 지적은 조기유학 연구의 주요한 연구 쟁점 중 하나가 가족과 계급에 관한 것임을 잘 드러내준다. 아울러, 학부모인 부부의 분거 경험(e.g., 김성숙 2006, 김양희·장은정 2004, 김영희 외 2005, 최양숙 2006, 2008), 어머니 노릇(성정현·홍석준 2013) 등 가족 유지와 실천의 영역에 대한 탐구는 가족연구로서의 교육이주의 주요 주제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부 연구는 조기유학의 현지 경험 뿐만 아니라 귀국 후 한국 교육 재진입 경험에 계급적 차이가 있음도 지적하였다(Kim 2013). 흥미로운 점은 초국적 이동성에 나타나는 계급적 차이가 반드시 경제적 여유층에게만 ‘귀국 연기’나 ‘제2의 유학지 선택’을 통한 초국적 이동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Kim 2010). 또한 조기유학생의 생애단계적 특성에 있어서 ‘사춘기’적 성장 단계의 청소년층은 또래 집단을

중시하기도 하여(Kim forthcoming) 귀국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층이 유학의 선택과 지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출을 한다는 일련의 보고(Orellana et al. 2001, 성정현·홍석준 2009, 조혜영 외 2007)는 유학의 지속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성이 가족 내 다양한 행위자를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분거로 인한 가족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예측가능한 난제와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한 계층만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기유학의 암묵적인 전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목 받은 핵심적인 이유이다. 동남아시아는 특히 “단기 이주형 조기유학”의 주요 대상지로 각광받아왔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중상층 보다는 중간층이나 중하층 집단들이 2000년대 들어 주로 선택하여 온 지역으로서 유학 비용 면에서 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중요한 선택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김지훈 2007, 2010, 성정현·홍석준 2013, Kim 2010)³⁾. 문화적으로도 보다 가까우며 해외에서 남편·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아내·어머니와 자녀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학과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Kang forthcoming)도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영어와 더불어 중국어 학습이 가능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특히 주목 받았다(Kim 2010, 성정현·홍석준 2013). 아울러 시차가 크고, 긴 항공 시간으로 연결되는 서구(특히, 북미와 영국)와는 달리 한국과의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은 지리적 인접성 이상의 의미로 가족 유지의 실천에 도움이 된다(Kim 2010). 동남아는

3)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의 학부모 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혹은 지방의 중산층 등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중산층 혹은 중하층이 주로 선택한 국가이다(Kim 2013, 성정현·홍석준 2013). 이와 달리 싱가포르 조기유학생의 경우는 강북, 수도권 신도시, 지방 중산층 뿐만 아니라 강남의 중산층도 어느 정도 포함되며, 계급적 지위는 자녀의 학교 선택에 있어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의 선택은 여유 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현지 공립학교를 선택한다(Kim, 2010).

한국과 1-2시간의 시차로 거의 동(同)시간대의 생활시간에 살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인터넷 통화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일상의 간접적 공유를 가능케 하며, 한 나절 이내에 보다 저렴한 항공편으로 방문할 수 있다. 가상과 실제의 ‘방문’은 분거 가족 간 시공간적 친밀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Kim 2012, Mason 2004). 다시 말해, 이러한 가족친화적 환경적 요소는 이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이주 맥락에서 어떻게 “가족 역할 실천하기(doing family)”를 수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Finch 2007).

<표 1> 초중고 출국학생의 국가별 현황, 2005-201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동남아	4,011	6,624	7,421	7,973	5,827	5,950	5,335	5,053
미국	12,171	14,474	14,006	13,156	10,076	10,761	10,572	8,857
중국	6,340	7,199	6,880	5,415	3,208	3,522	3,509	2,974
캐나다	4,426	6,155	5,453	5,172	3,590	3,397	2,727	2,610
호주	1,674	2,196	2,030	2,046	1,475	1,188	991	948
뉴질랜드	1,413	2,082	1,833	1,636	1,449	1,244	854	667
일본	812	769	810	852	702	637	603	470
영국	504	598	568	535	400	446	396	378
기타	2,315	3,730	2,944	2,911	1,918	2,111	2,507	2,015
미확인	1,478	1,604	1,470	1,265	1,124	993	638	445
총계	35,144	45,431	43,415	40,961	29,769	30,249	28,132	24,417

주: 1)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시도 교육청 유학 및 귀국학생 담당자가 조사양식에 의거 단위 학교별로 조사, 집계한 자료에 근거함 (기준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2) 동남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범주로 자료가 수집됨. 3) 출국현황 자료는 조기유학,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 부모의 해외 이주 동행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 4) 2011~2012년도 자료는 교육부 통계 자료집에서 동남아 범주로 집계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부(2012, 2013) 교육통계연감에 수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함. 5) ‘기타’ 범주는 기초 자료의 남미, 기타, 중동, 유럽의 합에서 영국을 감산한 것을 나타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 초중고 출국 및 귀국 통계, 교육부 (2012, 2013) 교육통계연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조기유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중적인 인기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 이주의 대중화를 상징한다(Kang and Abelmann forthcoming).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기유학 대상지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중요성 증가와 그 의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 특히 급증했던 조기유학이 2000년대 중후반 세계적 경제 불황에 따라 점차 감소세에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만은 여전히 상대적 증가세에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조기유학 대상 국가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선택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Kim 2010 및 <표1> 참조). 이는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계층이 보다 폭넓게 변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능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의 조기유학 연구에 있어 연구가 희소한 변방 지역이었지만, 실은 한국 사회의 조기유학 현상을 보다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본류 지역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중심지인 것이다.

둘째, “재력이 되는 아빠”를 뒀다면, “영어 잘하는 엄마” 없이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조기유학이 가능하게 된 국내 맥락의 변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초국적 이주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경 바깥의 현상과 활동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맥락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강화된 한국 사회의 교육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입학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상류층 이상의 가족들이 더 이상 “가족의 희생”(“가족 분거”) 없이 국내에서 자녀를 영어 몰입형 환경에서 영어 습득과 영어 환경에서의 학업 수행을 가능케 하였다.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조기유학생의 최근 감소세와 동남아시아행 비율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 능력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이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상층의 조기유학 대열 이탈 혹은 대안적인 방식의 초국적 유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⁴⁾

다시 말해,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조기유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의 조기 유학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연구를 시도한다면 이는 단면적이고 단편적인 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조기유학의 사회학”과 같은 향후 시도될 이론적 연구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초국적인(transnational) 맥락, 요소, 행위도 결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중요한 과업을 협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가족 사회학자의 시각(Finch and Mason 1993, Mason 2004)과 초국적 이주자들이 가족수준에서 이주(의 유지와 과정)를 타협, 협상, 실천하는 과정을 주목하는 연구도 고려될 필요가 크다(Cooke 2007, Finch 2007, Hardill 2004, Kim, 2012, Olwig and Sørensen 2002, Sørensen and Olwig 2002, Stalford 2005). 본 연구의 선행 연구(Kim 2010, Kim forthcoming)가 지적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조기유학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조기유학 유형으로 손꼽는 유형 이외의 초국적 이주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유학지로 유학생 단신 혹은 유학생 자녀와 어머니가 떠나는 “일반적인 유형(*typical kirogi*)”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싱가포르에 인접한 국가 출신의 주재원과 사업자들이 가족의 일부를 보내면서 분거 가족의 접촉과 가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 전략적 선택에 해당하는 “지역

4)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증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개인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유학생 감소세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지적한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형 기러기 가족”(regional *kirogi*) 유형이나 싱가포르에서 주재원으로 일한 후 귀국 발령을 받게 되면 가족을 남기고 가는 유형(ex-expatriate *kirogi*)도 파악되었다. 또한 본문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이들의 초국적 이동성(transnational mobility)은 글로벌 수준의 이동성(global mobility), 지역 수준의 이동성(regional mobility)과 로컬 수준의 이동성(local mobility)으로 구분가능 하며, 이는 최근의 초국적 이주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지역, 그리고 로컬의 정반합적인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이영민 2013).

한국인 유학생의 출국이 한국(식) 교육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조기 유학 경험 후 귀국한 학생에게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교육이주의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우리가 조기 유학생과 이주자 가족들의 초국적 활동(transnational activities)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Levitt and Jaworsky 2007). 특히, 초국적 이주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두 사회에 걸친 의미 있는 수준의 초국적 활동의 여부이다(Heisler 2008, Portes 2001, Portes and DeWind 2007). 조기 유학생과 그 가족의 초국적 활동의 여부는 이들이 단순한 유학생 혹은 교육이주자인가 아니면 동시에 초국적 이주자인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Kim 2013), 외국 현지 유학생의 경우 방학 중 한국으로의 단기 방문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 교육에서도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학업 전략을 구사하며, 귀국한 학생들의 경우도 유학 중 습득한 “언어의 유지”를 위해 교육 활동을 한국 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의 학기 중 동남아 현지 영어 원어민 교사와의 화상 통화를 통한 언어 학습 유지 등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교육 재적응의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교육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다시 유학을 선택하려 하는 등 초국적 이동성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im 2013). 다시 말해, 초국적 활동은 출신국과 유학 체류국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경험 중 하나로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다.

초국적 이주자 혹은 초국적 교육이주자의 이동성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희소하지만, 지리학자인 이영민·유희연(2008)과 이영민의 연구(2013)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글로벌 시대의 로컬과 글로벌은 서로의 대척점에서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양분 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영민 2013: 52), 초국적 이주자들이 “다양한 사회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용하여 독특한 로컬리티를 형성해 가고 있는 능동적인 실제로 기능하고”있다고 주장한다(이영민 2013: 48-9). 아울러, “조기유학은 특정계층의 아비투스로서 작용하며 유학의 통로로 위치 지어지는 장은 특정지역에” 배태(embedded)되어 있음(이영민·유희연 2008: 78)을 주목한다. 본 연구자는 초국적 이주자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그리고 로컬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가는 변형되는 로컬리티(locality)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기존 이론의 로컬(local)을 사회적 맥락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글로벌 시대에 각국의 국내적 제약에 유연하게(flexible) 대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엘리트 이주자인 초국적 교육 이주자에게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초국적 이주자의 이동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Kim 2010, forthcoming).

본 논문은 “실증적 트랜스내셔널리즘(empirical transnationalism)적 접근”(Khagram and Levitt 2008: 5-6)을 통해 유형화의 도출을 추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질적연구 방법을 실용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는 응용적 질적 연구 접근법(Guest et al. 2012)을 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기반이론 혹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불리는 질적 기법에서 중시하는 상시적 비교법, 자료의 포화(saturation) 추구 등을 채택하지만(Charmaz 2006, Creswell 2007, Birks and Mills 2011), 근거이론 논문들이 제시하는 연구결과의 도식화는 시도하지 않는다. 기어츠(Geertz 1973)가 제창한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처럼 자세하고 깊은 기술로 맥락을 묘사하려 노력하고, 마넨(Manen 1990)이 강조한 행위자의 실제 경험(lived experience)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만, 인류학자의 방식이나 현상학적 전통의 의미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궁극적으로 Burawoy(2000)가 주창한 “글로벌 문화기술지”를 추구하려는 방법론적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질적연구방법을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의 조기유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안병철 1996) 20년에 가깝고, 이제 조기유학의 사회학 이론을 추구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론화를 위해서는 초국적 이주의 현실과 경험에 기반을 둔 유형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의 조기유학 연구가 사회학, 가족학, 교육학, 지리학, 인류학, 언어학,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주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교육 이주로서 이주학적 논의와 함의를 담은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과거에 활발한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었던 주재원 연구(Cohen 1977)가 그 후 오랜 기간 경영학이나 지리학 등의 학문 영역에서 분절화된 논의로 이어졌으나, 당대 맥락의 전문 직종 이주자에 대한 실증주의적인 유형화 연구(Scott 2006)가 후속 연구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특히 그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실증적 트랜스내셔널적 접근을 통한 유형화 연구는 향후 본격적으로 수행할 이론적 트랜스내셔널 연구(Khagram and Levitt 2008: 2, 7-8)나 본격적인 글로벌 문

화기술지(Burawoy 2000) 연구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이론화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조기 유학생에 대해 단선적이고 일시적인 해외 학업 경험자가 아닌 초국적 이주자로 인식하여,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하며, 그 변화 과정은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지 유학국가와 한국의 교육 맥락과 양 국가에서의 교육 경험이 어떻게 초국적 이동성을 구성하는지를 다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 수행한 동남아시아 조기유학생 가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상당수는 당시 중·단기(대개 2년 정도) 유학을 계획하였으나 초기 계획한 유학 기간 종료 후에도 현지 잔류를 선택하여 ‘장기적 조기유학’형 이주자가 된 집단의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예정대로 그리고 예정과는 달리 귀국하거나 제3국 이주를 택한 사례도 함께 논의한다.

다음 절은 연구의 방법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론에서는 추적 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인 싱가포르 조기유학 가족의 이동성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에 대해서 기술한다.

II.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

1. 연구 방법: 실용적 질적연구방법과 실증적 트랜스내셔널 접근

첫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있어 질적연구방법과 실증적 트랜스내셔널 접근을 택한다(Khagram and Levitt 2008: 5-6).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도 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자료수집 과정에서부터 상시적인 비교를 통한 중간분석(cross checking and interim

analysis)과 추상화 과정을 통해 소(小)이론화를 추구하는 근거이론의 기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한다(Charmaz 2006, Creswell 2007). 다른 한편으로, 실증적 트랜스내셔널적 접근은 초국적 현상이나 과정의 중층기술, 매핑(mapping), 유형화(classifying)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Khagram and Levitt 2008: 4). Khagram and Levitt(2008: 5-6)은 실증적 트랜스내셔널적 접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트랜스내셔널 연구의 첫 번째 토대로서 ... 폭 넓은 범위의 형태와 과정에 대하여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이 두 개의 필수적인 과업이다. ... 기술적 연구는 유용한 유형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 아울러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차지하며 행위하는가를 분석하여 보여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싱가포르의 조기유학 연구 뿐만 아니라 이주 연구 일반에 있어서 트랜스내셔널 접근을 채택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기법이 갖는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조기 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 궤적을 조사한 종단 연구가 전무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기존 연구가 미미할 때 장점을 갖는 근거이론 방법은 특히 유용하다. 다음으로, 연구 일반에서의 변천 과정을 고려할 때, 심화 연구를 향후에 시도하는 데에 있어 기반이 되는 자세한 현실의 파악과 기술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증적 트랜스내셔널 접근은 향후 후속 연구가 보다 정밀한 이론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07년 실시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유학을 하였던 선행 연구(Kim 2010, Kim forthcoming)의 연구집단을 추적조사 하는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이다. 추적조사는

동일한 연구 집단에 대해 시차를 두고 연속적인 조사를 하는 종단 연구를 말한다. 즉,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이동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기유학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유학을 떠나는 이유나 현지에서의 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왜 떠나는 지, 현지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지에 대한 이유와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초국적 이동성의 한 시점에 대한 한 단면(snapshot)적 이해만 가능하거나 여러 시점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 과거에 대한 회고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억이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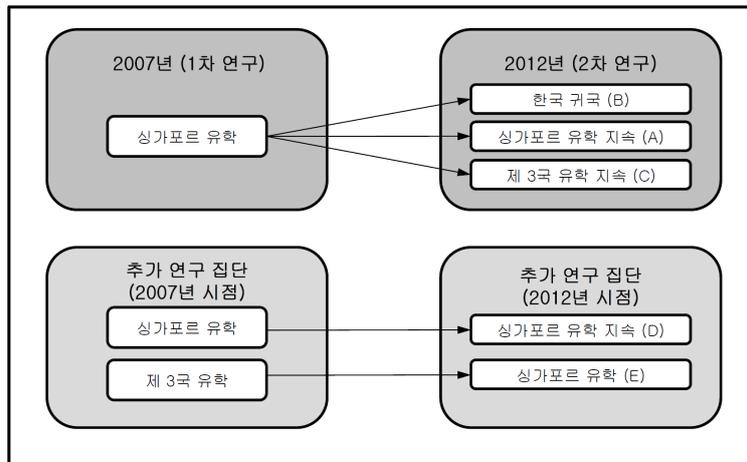
셋째,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 한국에서의 현장조사(fieldwork)를 통해 수행한 개별 심층면담자료(in-depth interview data)를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와 인구학적 질문서 작성 후, 모든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을 하였고, 면접 내용은 모두 전사되었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이동성 형태

본 연구는 초국적 이동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의 한 단계로서 2007년 당시 면접 조사를 실시할 때 약 2년간의 중단기 유학을 계획하였으나 현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2012년 2월말 현재까지 유학을 지속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계획하였다(<그림 1>의 A와 B집단).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이동성 파악을 위한 추적조사에서 1차 연구 시점(2007년) 이후 2차 연구 시점(2012년)에서 변화 가능한 최소 3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 중 첫째는 계획한 기간대로 (말하자면 “이삼, 이삼”으로) 조기유학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이다. 둘째, 조기유학 시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기간 이상으로 체류하는 것을 선택하는 집단

이다. 셋째, 원래 선택한 조기유학지에서 일정 시점 이후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유형도 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유형에 대한 사례도 더 확보하였다. 제 3국으로의 이동을 선택한 경우 추적조사에 있어 현실적으로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례를 제외하고, 2007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18 가족의 현재 소재 파악을 실시 한 후 연구일정에 따라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초국적 이주자 이동의 궤적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다.

<그림 1> 연구 집단과 이동성 형태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 (2007년과 2012년 조사 참여자)

유형	사례	A	1차 조사 (2007) 시점						2차 조사시점			
			부모 나이	학교	거주 시점 (Y/M)	자녀 1		직업 (부)	지출 (월)	부 면접	2차 면접	거주 지역
						자녀 1	자녀 2					
R	1	인성	41/50	L	06.04	14/남/중1 11/남/초4	자영업*	675만	O	O	싱가포르	
R	2	나영	42/42	L	04.06	18/여/고 16/여/중3	자영업*	600만	X	O	싱가포르	
R	3	G	40/45	L	05.10	14/남/중1 11/남/초4	자영업*	500만	O	O	싱가포르	
R	4	미나	41/46	L	05.01	15/여/중2 12/여/초5	자영업*	8천\$	X	O	싱가포르	
T	5	대호	40/43	I	06.06	11/남/초5	회사원	425만	O	O	싱가포르	
T	6	성훈	42/46	L	05.03	15/남/중2 13/남/초5	자영업	300만	O	O	한국	
T	7	현우	43/47	L	05.03	12/남/초6 7/남/초1	자영업	500만	O	O	캐나다 한국	
E	-	아람	42/44	I	02.08 05.06	17/남/중3 15/남/중2	대기업 입원	7천\$	O	모름	모름	
T	-	보람	36/41	I	04.10	10/남/초4 9/남/초3	자영업	15천\$	X	X	한국	
T	-	시우	40/42	I	04.03	13/남/초6	다국적 기업사원	650만	X	X	한국	
T	-	유리	37/38	I	05.01	10/남/초4	중소기업 운영	1만\$	X	모름	한국	
E	-	F	44/45	I	02/04	18/여/고2 17/남/고1	대기업 회사원	5천\$	X	X	한국	
T	-	주은	34/42	L	06.11	7/여/초1 6/남/유2	자영업**	65백\$	O	모름	한국	
T	-	K	39/42	L	07.01	11/여/초4 8/남/초1	회사원	400만	X	모름	한국	
R	-	T	40/49	L	04.03	14/여/초6 12/남/초4	태권도 교사*	35백\$	X	X	싱가포르	
T	-	U	41/43	L	05.04	8/남/초1	회사원	3천\$	X	X	한국	
T	-	용진	39/40	L	05.10	11/남/초4 7/여/초1	회사원	3천\$	X	X	한국	
R	-	Z	41/45	L	06.01	15/여/중2 11/여/초5	회사원	4천\$	O	모름	모름	

주 : A는 Kim(2010)에 사용된 첫 자녀의 가명 혹은 사례 기호이다. 유형의 R은 Regional, T는 Typical, E는 Ex-Expat 유형을 지칭하며, 학교 종류의 L은 로컬공립, I는 국제학교를 말함.

- 1) *남편의 사업/직장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관련이 있거나 소재한 경우.
- 2) 사례 2는 2명의 자녀가 더 있음(15세, 여, 중2와 12세, 초5, 남). 주은이네는 1명의 자녀가 더 있음(3세, 남)
- 3) 시우네, 용진이네, 사례 T, U는 소재를 파악하고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심층 면접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행하지 못함. 보람이네는 2007년 1차 면접 때, 귀국을 1주일 남겨두고 면접하였음. 연락이 닿지 못하여 2차 조사를 수행하지 못함.
- 4) 2차 인터뷰 판에 “모름”으로 표시된 경우, 갖고 있는 연락처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함.

<표 3> 2012년 추가표집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번호	나이 (모)	5년전(과거)과 싱가포르 입국시점	학교 종류	자녀1	자녀2	직업 (부)	월가구 소득	싱가포르 월지출
8	44	필리핀(2006년3월) 싱가포르(2009년7월)	공립	17/남/중4	16/남/중3	유조선 기관사	800만	500만
9	46	뉴질랜드(2005년9월) 싱가포르(2007년10월)	공립	16/남/중3	13/여/중1	전 대기업 주재원	500만	750만
10	58	싱가포르(2007년1월)	공립	21/여/고2	16/여/중3	중소기업 운영	500만	500만
11	45	뉴질랜드(2002년8월) 한국(2006년9월) 싱가포르(2007년7월)	사립/ 공립	18/남/12년	16/남/중3	회사원	800만	550만
12	44	싱가포르(2007년10월) 한국(2009년7월) 싱가포르 (2010년12월)	공립	17/여/중4	11/여/초5	학원강사	700만	\$\$5천
13	42	싱가포르(2011년 5월)	공립	14/여/중1	12/남/초4	회사원	600만	500만
14	42	필리핀 (2008년6월) 싱가포르 (2009년12월)	공립	15/여/중1	13/여/초6	사업	700만	5~600만

주: 1) 사례 13과 사례14는 2007년 시점에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보다 최근에 유학 온 사례의 경험과 대조하기 위하여 추가로 표집 함.
2) 사례 10의 자녀1은 싱가포르 학제 고2로서 한국의 고3에 해당.

<표 2>와 <표3>은 2007년과 2012년에 수행한 연구에 참여한 교육이주자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서는 1차 조사에서 Kim(201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7년 7월-9월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조기유학 학부모 중 학생의 조기유학 기간을 최초 계획보다 연장하여 싱가포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조기유학생 가족의 학부모(사례1~사례7)와 2012년 현재 중학교 재학 이상의 유학생 본인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⁵⁾ 그러나, 싱가포르 현지조사 전과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07년에 얻었던 주 연구 참여자의 한국과 싱가포르 연락처와 이들을 소개하였던 제보자를 통해 <표 2>의 주 연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연락을 취하였을 때, 18 가족의 1차 조사 대상자 중 10 가족의 현재

5) 논의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유학생 본인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는다.

소재지(싱가포르 6명, 한국 4명)와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싱가포르에서 5명, 한국에서 2명의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었다.⁶⁾

2012년 현지조사 실시 중, 싱가포르 유학 지속 가족과의 심층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본론에서 주목하여 다루겠지만, 싱가포르 내에서의 이동성이 적지 않다는 점과 싱가포르가 아닌 제3국에서 교육 이주를 하다가 싱가포르로 재이주를 하는 경우를 상당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의 교육이 주자의 유입은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들어 싱가포르의 물가(아파트 월세 등) 상승폭이 높고,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의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세부 집단의 경우 원래의 연구 설계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주 연구 대상과 동일한 비교연구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단 연구의 경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 원 연구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의 추가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이처럼 현지 조사 중 파악한 현장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례에 대한 추가 표집을 하기로 현지에서 자료 수집 전략을 수정하였다. 새로 더해진 연구참여자는 총 7 사례(사례8~사례14)의 어머니와 4명의 청소년 자녀이다(<표3>; 싱가포르에 5년 이상 계속 체류자 2인, 제3국 체류와 싱가포르 체류를 합하여 총 5년 이상 체류자 5인).

결과적으로 2012년에 추적조사에서는 총 14인의 조기유학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그들 자녀 중 11인에 대한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6) 싱가포르 소재자 1명은 현지 조사 기간 중 여러 차례 단기간 해외 출국(남편은 인도네시아 체류, 남편과 만나기 위해 출국)으로 인해 인터뷰 수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으로 귀국한 3인의 경우 수차례 전화로 접촉하였으나 연구 기간 중 인터뷰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체류 유형화에는 현 소재지에 따라 포함한다.

Ⅲ. 초국적(Transnational) 이동성의 구성과 유형

전반적인 수준에서 연구 결과를 먼저 요약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초국적 이동성은 글로벌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로컬 수준의 이동성(mobilities)으로 구성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수준의 계급재생산의 한 방편 혹은 글로벌 인재로서 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열망에서 교육이주를 선택했다라도 이주대상국가와 출신국가인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혹은 미래에 재이주를 염두에 둔 제3국의 로컬 맥락에도 영향을 받아 이동성이 구성되며, 이들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배태된 교육 경험과 이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컬 수준의 이동성은 교육이주 본연의 목적 달성 수행을 위한 활동 반경이 거주국가와 출신국가 양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초국적일 뿐만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로서 양 국가에 배태됨으로 인해, 양 국가의 맥락과 제도적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Kim 2010, 이영민 2013).

본 연구의 주장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조기 유학생의 이동성과 이동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이 측면의 가족 수준, 로컬 수준, 글로벌 수준의 여건과 맥락과 상호 조응하며 변형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세 측면은 1) 자녀의 학업 성취, 2) 가족의 여건 변화 그리고 3) 싱가포르와 한국의 교육 제도와 맥락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에 대한 수용 맥락 혹은 방식(context of reception)이다. 이 세 측면은 긴밀하게 상호 연계 되어있다. ‘학업’을 주목적으로 한 조기 유학생의 이주가 한국의 교육 체제를 벗어나 외국의 교육 체제로 진입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조기유학의 경우 자녀 학업의 성취 수준 정도가 이동 혹은 정주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두 가지 추가적인 고려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여건 변화와 거주 국가와 출신 국가(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이주자 수용 맥락은 초국적 교육 이주자의 국경을 넘는 교육 열망은 그 열망을 촉진하거나 혹은 위축시키는, 비유적으로 말해, 도약대(trampoline) 혹은 허들(hurdle)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둘째, 싱가포르의 이주자 수용 맥락의 핵심인 수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싱가포르 교육 체제는 조기 유학생의 국내적 이동과 국제적 이동을 더욱 가속화한다.

표면적인 수준에서 조기 유학생의 이동성과 그 궤적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 싱가포르 계속 체류, 2)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의 이동, 3) 한국으로의 귀국, 4) 유동적 이동성이 그것이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사례와 함께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이주 경험을 하는 이유는 유학을 통해서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에 거주하기 위한 지리적 이동을 행하였다는 이유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존재했다. 2차 현지 조사 수행에서는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두 가지 주목할 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조기 유학생 가족의 이동성은 “한국 → 싱가포르 → 한국”과 같이 단순한 두 국가 간 이동 뿐만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 외의 다른 나라를 포함한 다국가(多國家)간 지리적 이동(geographic mobility)도 포함하는 복잡한 이동궤적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 5년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 후 귀국한 한국인 조기 유학생의 이주의 궤적은 여러 나라를 거치는 연쇄적인 재이주(multiple re-migration)(예를 들어, “싱가포르 → 캐나다 → 한국 → 미국” 혹은 “필리핀 → 싱가포르 → 향후 제3국 이주 계획”)가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유동적인 이주(fluid migration)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주 궤적은 다구간적이며 그 시점은 불확정적이다. 이는

마치 여러 나라를 거치는 세계일주 항공권을 비행 날짜와 여행 구간을 잠정적으로 “오픈(Open)” 상태에서 끊어둔 것과 비견할 만하다.

둘째,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도 싱가포르 안에서 상이한 국가체계를 갖는 학교 시스템 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예를 들어, 싱가포르 공립학교에서 국제학교로의 전학을 말하는데, 이를 단순히 전학(transfer)이라고 부르기보다 새로운 유학지를 선택하는 것과 버금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mobility)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싱가포르 교육체제와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조기유학 가족의 상호 작용적 반응과 조응이다. 다시 말해, 교육제도가 국경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교육이주자의 대거 이주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이주자 유치 정책 등 글로벌한 변화 역시 반영하고 다수의 교육 이주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로컬 맥락도 다시 조응하며 변형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2007년 연구 당시 싱가포르의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 교육이주자들은 싱가포르 공립학교의 외국인 전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령에 대응하는 학년에 비해 1-3년 정도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다운(down)’을 대개 경험한 바 있다(Kim 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글로벌 스쿨하우스(Global Schoolhouse)정책(김지훈 2010, 김지훈·이민경 2011)으로 유입된 조기유학생들이 대거 ‘다운’을 경험함에 따라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학 사정 시 2년 이하로 ‘다운’되는 학생들만 공립학교에 입학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던 점은 교육이주자와 관련된 예일 것이다(Kim forthcoming). 따라서 교육이주자는 로컬 수준의 맥락에 따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지 지역 학업 적응 및 학업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 이들의 이동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1. 싱가포르에서 계속 체류 유형: 로컬 수준의 이동성

1차 조사 시점 이후 약 5년 동안 싱가포르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 7명의 사례는 한 나라에 정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수준의 이동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로컬 수준의 이동성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상이한 국가체계의 학교 시스템 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르고자 한다.

한국인을 포함한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에게 있어 접근 가능한 싱가포르의 교육 체제는 싱가포르 공립 교육, 사립 교육, 다양한 국가 시스템에 기반을 둔 국제학교 교육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의 조기유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과 중반의 경우 한국의 공립학교의 등록금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학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싱가포르 공립학교가 조기 유학생의 싱가포르 이주를 이끌었던 주요한 유인이었다(Kim 2010). 싱가포르 공립학교는 수월성 교육(예를 들어, 우열반과 열등반의 구분 그리고 그 트랙(track)별로 상이한 향후 진학 기회)에 기반을 두고 초등학교 졸업 시험(PSLE)의 결과에 따라 중등학교는 서열화된 트랙으로 구성된 인문 계열과 전문기술 계열로 양분된다(황인원 외 2012, 김지훈·김성희 2014). 일단 트랙이나 계열 과정이 정해지면 이를 옮기기는 대단히 어렵다(Kim 2010). 5년 전 만났던 사례 4의 자녀는 2007년 당시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나, 2012년 현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전학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싱가포르 교육 체제 내의 이동이 왜 일어나는 지를 잘 보여준다.

“제일 먼저는 로컬 학교에서 공부를 잘 했으면 ... 그냥 그대로 로컬 다니면서 오레벨(O Level)을 준비할 수 있는데 공부는 따라는 그냥 겨우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욕심 있는데 안 되는 거에 욕심이 있었고 자꾸 스트

레스 받고 [그래서] 오 레벨 치기 전에 3학년 때 국제 학교로 옮기
자고 결정했죠.” (사례 4)

위의 사례 4에서 보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의 학업이 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에서 상이한 체계의 학교 간 전학을 통한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동은 소위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알려진 대로 싱가포르에서 2중 언어(영어와 중국어)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광고(김지훈 2007, 2010) 그리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이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반에 중도 진입한 한국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Kim 2010, 김지훈·김성희 2014). 대개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의 유학 목적이나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2중 언어의 습득, 특히 영어 외에 중국어도 더불어서 학습하는 것에 대한 학습 부담과 여타 정규 과목을 동시에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규 학습 교과로서 중국어는 포기하게 된다(Kim 2010). 왜냐하면 중국어를 제2 모국어로 습득하고 학습하는 중국계 싱가포르 학생과의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언어 외의 교과목이 저학년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학과목도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어 과목은 공교육 과정 중에는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교육으로 중국어 학습을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의 공교육 중 수월성 중심의 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트랙과 그렇지 않은 트랙으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만일 학업을 계속 한다면 한국 교육제도 상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한국인들

은 편의상 이러한 초중등학교의 교육 트랙(그리고 개별 학교의 수준 및 서열)을 로컬 A, B, C 그룹으로 나누어 부른다(황인원 외 2012). C 그룹의 경우, 사례1에 의하면, “애들 별 사고 없이 졸업만 해라”라는 시스템으로, 교육 방침이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기 유학의 근본 목적에 대한 실패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례 1 어머니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의미로 유학을 온 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로의 이동은 조기 유학생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학교로의 전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국제학교로의 전학을 결정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례라고 일반화하기도 힘들다. 공립학교 재학 유학생 중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어 유학을 지속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 내 가용한 거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고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어머니가 다른 단신 유학생의 홈스테이(home stay, 하숙)를 유치하는 등의 부업에 뛰어들어 소득을 얻으면서 본인 자녀의 대학입시까지 버티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사례 6, 사례 9).

조기 유학을 수년간 하였으나 인문과정 중고등학교 혹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진학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싱가포르의 국제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유학 오기 전에는 고려 대상으로 꿈꾸지도 않았을 싱가포르 소재 한국학교로의 체제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고려되는 것은 학업의 우수 여부만이 아니다. 2007년 1차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무렵 싱가포르의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한국인 학생의 경우 전입학을 위한 시험에서 1-3년간의 ‘다운’을 경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Kim 2010). 이때 ‘다운’된 1-3년간의 기간 중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부모와 학생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싱가포르의 한국학

교를 진학하는 경우, 한국의 대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어서 한국 대학의 입시 준비 기간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싱가포르에 처음 유학 왔을 때 1년간 ‘다운’되었던, 둘째 자녀를 싱가포르의 공립 학교에서 국제학교를 거친 후 다시 한국학교로 옮기게 된 사례 4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국제 학교[로] 바꾸면서 인제 [전에 비해 나이 대비 재학 학년이] 반년이 올라간 거죠. 보통 나이 가는 정도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학교로 옮기니까 1학년을 다시 배우는 셈 하고 ‘다운’ 하자 해서. 고 2로 [한국에] 가면 고 3 [기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의미: 빠듯하다]. 고3 1학기에 대학을 가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고2 대신] 고 1 [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기 아빠도 [말하기를] ‘계속 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하는 것 같다’ [고 해요.]”
(사례 4)

사례 4의 아버지가 “계속 고등학교 1학년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자녀가 실제로 싱가포르의 여러 체제의 학교에서 고 1과정을 총 2년 반 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자녀의 학업이나 가족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는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상황적 여건과 의견 변화는 싱가포르 계속 체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서 조기 유학생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구체적으로 1) 자녀가 유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와 2) 상대적인 근거리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것을 통해 부부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편의 의사를 들 수 있다. 2007년 조사 때, 조만간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사례 2가 제 3국으로의 재이주를 포기한 이유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때 [재이주 대상국가로] 호주를 생각을 했어요. 집에 열흘을

들어박히면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죠. ‘가리라’ 이랬는데 딱 두 사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는데. [자녀 중 한 명이] ‘엄마, 난 여기가 좋아.’ 남편이 출장을 중국에 가 있었을 때 [내가] ‘자기야 나 아무래도 호주로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남편은]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딱 접었어요. (사례 2)

이와 같은 사례 2의 내러티브는 조기유학과 교육이주에 있어서 자녀의 역할이 조기 유학의 결정이나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성정현·홍석준 2009, Orellena et al. 2001). 또한 교육 목적의 이주가 아닌 초국적 이주자들 중에서도 배우자 우선 등 가족 수준의 전략적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Cooke 2007, Hardill 2004, Kim 2012, Olwig and Sorensen 2002, Stalford 2005). 특히, 국내 연구 다수가 지적한 대로, 분거가족으로서 기러기 부부 생활을 지속하여야 하는 남편·아버지 그리고 아내·어머니의 어려움(김성숙 2006, 김양희·장은정 2004, 김영희 외 2005, 최양숙 2006)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2.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의 이동: 글로벌(global) 및 지역적(regional) 교육 위계와 도약대(trampoline)로서의 싱가포르

초국적 이동성의 두 번째 유형은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 재이주한 경우이며, 이를 “도약대로서의 싱가포르”라고 부르고자 한다. 본 연구의 1차 조사를 수행하였던 2007년 연구대상자 중에도 일부 사례(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T)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당시 연구에서는 이들 가족의 아버지의 사업 소재지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입지를 고려하

였을 때 가족 유지의 장점을 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었다. 예를 들어,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던 경우였다. 이들의 베트남 거주 경험은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에,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경우는 주로 동남아시아 및 인접 국가에 남편이 직장을 둔 경우 중에서 현지 국가의 학교 사정이 열악할 때 선택하는 지역형 기러기 가족(*regional kirogi*) 유형(Kim, 2010)으로 파악했다. 2012년의 2차 조사 중 1차 조사대상자 외에 연구참여자를 추가 모집한 결과,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한 사례를 다수 파악할 수 있었다(사례 9, 사례 11, 사례 14). 추가 사례를 통해 파악할 때, 싱가포르의 지역적 입지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다른 요인도 결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약대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유형은 조기 유학지간의 글로벌 혹은 지역적 위계(*regional hierarchy*)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글로벌 위계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싱가포르 교육체제(김지훈 2010, 김지훈·김성희 2014, 황인원 외 2012)하에서, 싱가포르의 주요 명문 고등학교의 경우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의 진학도 가능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싱가포르의 공립학교는 인접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조기유학을 했던 한국인 조기유학 가족 중 학업이 우수한 학생을 싱가포르로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한다. 즉, 제1차 조기 유학 대상지로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본 연구에 포함된 예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업을 유지한 조기 유학생에게 학업 강도가 높고 규율 정도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로 유학을 할 수 있는 유학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경비는 저렴하지만 학업 강도나 규율 정도가 낮으면서 생활 만족도가 낮은 필리핀 유학 경험자와 생활 만족도는 높지만 학업

강도가 낮은 뉴질랜드 유학 경험자가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이다. 뉴질랜드에서 2년을 보낸 후 싱가포르로 재이주한 사례 9의 뉴질랜드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 9: [뉴질랜드의 경우는] 애들 처음 영어 배울 때에는요 스트레스 없이 참 좋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 놀면서, 시험이라는 것도 없고, 책도 없어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애들이 처음 영어를 접하기에는 진짜 최적의 환경인 거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요. 엄마도 너무 좋고 나가면 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 없이 자연 즐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영어 하고 ... 뉴질랜드 기억은 그래 갖고 참 좋아요. ... 만족스러웠는데, 장기는 안 돼요. 공부를 너무 안 시켜요.
연구자: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례 9: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쉬운 거를 가르쳐요. 시험이라는 개념도 없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잘 한다’ ‘잘 한다’ ... 진짜 애들 스트레스 안 받고 좀 고학년 올라가면 깊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학년이고 이럴 때는 너무 [좋죠]. 뉴질랜드는 영어 공부 하러 갔다가 잠깐 2,3년 있을 때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위의 사례 9가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안전하고 공부[를] 좀 많이 푸시(push)를 한다고 해서”였다. 그런데 싱가포르로 옮겨서 자녀들은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 아침 6시 10분쯤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총 20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사례 9 어머니는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시키는 싱가포르의 교육이 뉴질랜드에 비해 인간적인 면에서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하면 어디를 가도 뒤쳐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한다. 사례 9 자녀의 경우 싱가포르 공립 고등학교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다.

이와 같이 조기 유학 학부모의 인식에 있어 국가 간의 위계는 각

가정의 경제 수준에 맞춘 현실적인 선택 옵션(학비 및 생활비 등 다양한 경제 수준별 학교와 국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특성과 한국의 다양한 계층의 조기유학 욕구가 조응, 대응된다. 이 점은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조기유학생 전체 규모의 하강에도 불구하고 왜 동남아시아로의 조기 유학은 상대적 인기를 누리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즉,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 영어권 국가로의 조기유학의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과 환율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학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급등락을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조기유학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 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기유학 출입국 통계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유형의 조기 유학 집단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조기 유학 이주자의 해외에서의 연쇄적 재이주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다.

3. 한국으로의 귀국 (혹은 제3국 재이주 후 귀국의) 선택

세 번째 유형은 한국으로의 귀국 유형이다. 총 5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또한 중등 과정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의 조기유학 가족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유형은 조기유학을 지탱하는 두 축인 ‘자녀의 학업’과 ‘가족 지원 및 가족 관계’들 다에 큰 난관에 처했기 때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삼, 이삼”을 원래 목표로 삼고 이를 완수한 후 귀국한 경우도 존재하지만(보람이네 사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교육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또한 싱가포르에 교육 유지의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딜레마적인 계속 체류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후자에게서는 최후의 선택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 중 두 사례를 통해서 이 점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 6의 자녀는 싱가포르에서 총 5년간 공립학교에 재학하다가 2010년 무렵 한국으로 귀국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 보다 1년 일찍 2009년에 귀국하였다. 이 사례는 2007년 조사에 기반을 둔 선행 연구(Kim 2010, Kim forthcoming)에서도 주목을 했던 사례이다.

2007년 당시 사례 6의 두 자녀는 각각 1년과 2년 ‘다운’되었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귀국을 언제 해야 하나 딜레마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으로의 귀국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학교 재학 나이의 두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을 할 경우, 소위 ‘불법’인 조기 유학생들이 제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을 더 싱가포르에서 체류한 후 사례 6 어머니는 당시 중학교 과정의 두 아이들을 1년간 더 남겨두고 귀국하였다. 장남의 경우 그 다음해 오 레벨 시험을 쳤으나 싱가포르 내 인문과정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남아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자 귀국도 고려하게 되었다. 업 친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자영업은 버티기 힘든 사정으로 되어 조기유학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쉽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귀국을 결정한다. 장남의 경우 동급생과 1-2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학년으로 한국의 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고, 학교로 전학하는 것 대신 고등학교 졸업 자격 획득을 위한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한국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한다. 차남의 경우 어머니의 설득 끝에 같은 나이의 친구들 보다 1년 아래의 학년으로 한국의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여 다니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제3국으로 재이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의 중도 귀국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직접 귀

국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7의 경우 2007년 1차 조사 당시 공립학교에서 재학 중이었고 총 2년을 싱가포르에서 보냈다. 당시 2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싱가포르 유학을 결정했지만 1차 인터뷰 당시 팍팍한 싱가포르 공립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자녀 둘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서 1년을 보낸 후 다시 캐나다로 재이주를 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험을 비교하였을 때, 사례 7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 지적으로 애들이 얻어 오면 된다 딱 그거뿐이었어요 중국어, 영어 해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 그런데 캐나다를 가보니까 ... 애들에게 단지 영어를 잘 하고 중국어를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 익숙한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 보는 거 거기에서 밀리지 않고 맞짱을 뜨고 해 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례 7)

사례 7 가족이 캐나다에서의 만족스러운 자녀의 학업 경험과 어머니의 생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기유학의 재정 지원자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유학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애]가 중 2때 다시 나갔다가 사실은 계속 거기 있을 생각을 했는데 남편 회사에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1년 만에 애들 데리고 그냥 그대로 강제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랬었는데, 남편이나 나랑 아이들이랑 들어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가능하다면 거기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서라도 계속 있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례 7)

위 두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이주자 수용 맥락은 조기

유학생의 귀국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영구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에게만 체류국가의 이주자 수용 맥락이 이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조기유학생의 모국도 비슷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Kim 2013). 구체적으로 수용 맥락을 살펴보면,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한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사례 6처럼 중등학교 전학자의 경우 싱가포르 공립학교에서의 ‘다운’때문에 제 나이에 맞는 학년을 찾아서 편입하기에 힘들다는 국내 진입의 장벽이 존재한다. 사례 6의 장남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 학교 전입학 대신 검정고시를 선택했고, 차남은 나이에 비해 1년 낮은 학년을 받아들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경우 학교장 재량의 간단한 학력인정 시험을 통해 대개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중등학교와 같은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것이 해외 장기 체류자가 당면하는 어려움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 편입한 사례 7의 둘째 자녀의 경우 조기 유학을 통한 한국 교육의 공백은 학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귀국한 조기유학생에 대한 편견이라는 다른 형태의 장벽에 처해야 했다.

4. 유동적 이동성(fluid mobility): 불확정된 미래의 재이주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유형이 현재까지의 이주 유형을 지적한다면, 이 세 유형 모두에게 가까운 미래에 적용가능성이 큰 미래의 이동성 유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유동적 이동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조기유학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상당수는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제3국으로의 재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 제3국이 어느 나라가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미래의 재이주 대상 국가가 유동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대학 진학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 5는 다음과 같이 본인 자녀의 상황을 빗대어 말한다.

“한국에서 같으면 이게 있잖아요. 길이. 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우선 [진학할 수 있는] 나라부터가 많고 [입학 준비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입학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정하기는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한국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학력고사 봐서 대학원서 넣어서 그 날 딱 되는데.”(사례 5)

실제로 여러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가족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자녀의 경우 현재 일부 자녀는 싱가포르에서 다른 자녀는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사례 4), 2차 조사 당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미 첫째 자녀는 영국, 홍콩 등의 여러 나라의 대학에 지원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3). 따라서 유동적 이동성은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불확정적인 미래의 재이주 가능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본 연구는 초국적 이주이론 중에서도 실증적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접근을 채택하여 교육이주(조기유학) 가족의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실시한 선행 연구(Kim 2010, Kim forthcoming)의 연구집단을 추적조사하여 이주자들의 이주 궤적을 분석하고 그 유형

을 탐색적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조기유학 연구 접근인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 중심적 혹은 유출 요인 중심의 설명으로 조기 유학을 접근하는 경향(김경근·윤혜준 2005, 손준중 2005, 안병철 1996, 이기홍 2005, 조명덕 2002, 조은 2004, 천세영·박소화 2008)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의 조기 유학이 초국적 이주의 특성을 띠고 있음을 주목하여(이영민·유희연 2008, 이영민 2013, Kim 2010) 싱가포르의 조기 유학생의 이동 궤적을 살펴 보았다. 특히, 조기유학은 가족 수준의 전략적 선택(김지훈 2007, Kim 2010, 성정현·홍석준 2013)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이주의 경험 역시 다면적으로 구성되며, 초국적 이동성의 탐구에 있어서 여러 행위자와 출신국가와 주재국가 양국의 영향이 모두 주목되어 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기유학자 역시 특정 장소·지역에 배태되어 있음(Kim 2010, 이영민·유희연 2008: 78)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존 이론의 로컬을 사회적 맥락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글로벌 시대에 각국의 국내적 제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엘리트 이주자인 초국적 교육 이주자에게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초국적 이주자의 이동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Kim 2010, forthcoming).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초국적 이동성은 글로벌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로컬 수준의 이동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수준의 계급재생산의 한 방편 혹은 글로벌 인재로서 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열망에서 교육이주를 선택했다더라도 이주대상국가와 출신국가인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혹은 미래에 재이주를 염두에 둔 제3국의 로컬 맥락에도 영향을 받아 이동성이 구성되며, 이들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배태된 교육 경험과 이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컬 수준의 이동성은 교육 이주 본연의 목적 달성 수행을 위한 활동 환경이 거주국가와 출신국가 양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초국적일 뿐만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가 양 국가에 배태됨으로 인해, 양 국가의 맥락과 제도적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Kim 2010, 이영민 2013).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교육 이주자의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이 측면의 가족 수준, 로컬 수준, 글로벌 수준의 여건과 맥락이 서로 상호 조응하며 변형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기존 이주 이론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주국가와 출신국가의 수용 맥락은 교육 이주자에 제도 적용되며, ‘학업’을 주목적으로 한 조기 유학생의 이주는 자녀 학업의 성취 수준 정도가 이동 혹은 정주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가족 여건 변화와 이주국가와 출신 국가의 교육제도 등 이주자 수용 맥락은 초국적 교육 이주자의 국경을 넘는 교육 열망을 촉진하거나 혹은 위축시키는, 도약대 혹은 허들과 같은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Kim 2010, forthcoming). 특히, 싱가포르의 교육 이주자를 위한 정책과 수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싱가포르 교육 체제는 조기 유학생의 국내적 이동과 국제적 이동을 더욱 가속화함을 알 수 있었다(김지훈·김성희 2014).

조기 유학생 가족의 궤적을 살펴보았을 때 다국가(多國家)간 지리적 이동도 포함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이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인 조기 유학생의 이주 궤적은 여러 나라를 거치는 여러 번의 연쇄적인 재이주가 특징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유동적인 이주”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주의 경로·궤적은 다구간적이며 그 시점은 불확정적이었다. 이는 마치 여러 나라를 거치는 세계일주 항공권을 비행 날짜와 여행 구간을 잠정적으로 오픈 상태에서 끊어둔 것과 비견할 만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 트랜스내셔널리즘 방법으로 자세한 기술과 유형화에 한정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의 조기 유학에 대한 이해, 유학생의 귀국 후 적응에 대한 이해 등 초국적 이주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논의를 심화 시킬 토대로서 의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기 유학, 교육 이주, 초국적 이주, 이동성, 유형화, 추적 조사, 종단 연구, 싱가포르, 질적 연구

〈참고문헌〉

- 강만철. 2008.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호주 브리즈번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1): 15-27.
- 김경근·윤혜준. 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 김성숙. 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양희·장은정. 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영희·최명선·이지향. 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1-152.
- 김지훈. 2007. “급증하는 싱가포르 조기유학.”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특집기획 35회. 『경향신문』 10월 27일.
- _____. 2010. “싱가포르의 교육 산업화와 교육 이주.” 『동아시아브리프』 5(4): 46-51.
- 김지훈·김성희. 2014. “싱가포르 이중 언어 현실과 교육 정책: 역사

- 적 형성 과정과 사회적 함의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24(1): 152-180.
- 김지훈·이민경. 2011.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서울 A 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0(2): 73-101.
- 성정현·홍석준. 2009. “동남아시아 조기유학 청소년의 유학 결정과정과 유학경험: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71-102.
- _____.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보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손준중. 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 교육 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안병철. 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4: 423-468.
- 이기홍. 2005. “지구화시대에 미국을 본다: 미국으로의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 열망.” 『사회과학연구』 44: 105-122.
- 이영민·유희연. 2008. “조기유학을 통해 본 교육이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상징자본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2): 75-89.
- 이영민. 2013.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지리적 연구 관점과 방법의 재정립” 『문화역사지리』 25(1): 47-62.
- 조명덕. 2002. “조기 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상과 인식』 26(4): 135-152.
-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 조혜영·최원기·이경상·Nancy Abelman. 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천세영·박소화. 2008. “초국적교육: Post-nationality의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 『인문학연구』, 35(2): 329-351.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문화』 18(2): 37-65.
- 최양숙. 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 메리엄. 2002. “조기유학생 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황인원·김형중·김지훈.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22(3): 123-167.
- Basch, Linda G.,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ondon: Routledge.
- Birks, Melane and Mills, Jane. 2011.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Sage.
- Bryceson, Deborah Fahy and Ulla Vuorela. 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Oxford: Berg.
- Burawoy, M. 2000. *Global Ethnography: Forces, Connections and Imaginations in a Postmodern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 Chiang, L. H. N. 2008. "'Astronaut Families': Transnational Lives of Middle-Class Taiwanese Married Women in Canada."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9(5):505-18.
- Cohen, Erik. 1977. "Expatriate Communities." *Current Sociology* 24(3): 5-133.
- Cooke, F. L. 2007. "Husband's Career First: Renegotiating Career and Family Commitment among Migrant Chinese Academic Couples in Britai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1: 47-65.
- Creswell, John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 Finch, Janet. 2007. "Displaying Families." *Sociology* 41(1):65-81.
- Finch, Janet, and Jennifer Mason. 1993. *Negoti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uest, Gregory S., MacQueen, Kathleen M. and Namey, Emily E. 2012. *Applied Thematic Analysis*. Thousand Oak: Sage.
- Hardill, I. 2004. "Transnational Living and Moving Experiences: Intensified Mobility and Dual-career Household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0: 375-389.
- Heisler, B. S. 2008.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In Brettell and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Ho, Elsie Seckye. 2002. "Multi-Local Residence, Transnational Networks: Chinese 'Astronaut' Families in New Zealand."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1: 145-164.

- Ho, E., and R. Bedford. 2008. "Asian Transnational Families in New Zealand: Dynamic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Migration* 46(4):41-62.
- Ho, Elsie Seckye, Manying Ip, and Richard Bedford. 2001. "Transnational Hong Kong Chinese Families in the 1990s." *New Zealand Journal of Geography* 101: 24-30.
- Huang, S. and B. S. A. Yeoh. 2005.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China's 'Study Mother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5: 379-400.
- Huang, S. and B. S. A. Yeoh. 2011. "Navigating the Terrains of Transnational Education: Children of Chinese 'Study Mothers' in Singapore." *Geoforum* 42(3): 394-403.
- Huang, S., B. S. A. Yeoh, and T. Lam. 2008. "Asian Transnational Families in Transition: The Liminality of Simultaneity." *International Migration* 46(4):3-13.
- Kang, Jiyeon and Nancy Ablemann. forthcoming.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n Early Study Abroad in the First Decade of the Millennium" In Lo, Adrienne, Abelmann, Nancy, Kwon, Soo Ah, & Okazaki, Sumie (Eds.)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Kang, Yoonhee. forthcoming. "Going Global in Comfort: South Korean Education Exodus in Singapore" In Lo, Adrienne, Abelmann, Nancy, Kwon, Soo Ah, & Okazaki, Sumie (Eds.)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Khagram, Sanjeev, and Peggy Levitt. 2008. *The Transnational Studies Reader: Intersections and Innovation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im, Jeehun. 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Kirogi) Children in Public School.”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 _____. 2012. “Remitting ‘Filial Cohabitation’: ‘Actual’ and ‘Virtual’ Coresidence between Korean Professional Migrant Adult Children Couples in Singapore and their Elderly Parents.” *Ageing and Society* 32(8): 1337-1359
- _____. 2013. “Returning Experiences of Korean Early Study Abroad(Jogijuhak) Students who Studied in Southeast Asia” 『언어와 문화』 9(2): 101-120.
- _____. forthcoming. “The ‘Other Half’ Goes Abroad: The Perils of Public Schooling in Singapore”, In Lo, Adrienne, Abelmann, Nancy, Kwon, Soo Ah, & Okazaki, Sumie (Eds.)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e, Yean-Ju and Hagen Koo. 2006. “Wild Geese Fathers’ and a Globalised Family Strategy for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28: 533-553.
- Levitt, P. and B. Nadya Jaworsky. 2007.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129-156.
- Mason, Jennifer. 2004. “Managing Kinship over Long Distances: The Significance of ‘the Visit’.” *Social Policy & Society* 3: 421-429.

- Olwig, Karen Fog and Ninna Nyberg Sørensen. 2002. "Mobile Livelihoods: Making a Living in the World." In N. N. Sørensen and K. F. Olwig(eds.), *Work and Migration: Life and Livelihoods in a Globalizing World*. pp. 1-19. London: Routledge.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Orellana, M. F., B. Thorne, A. Chee, and W. S. E. Lam. 2001. "Transnational Childhoods: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Processes of Family Migration." *Social Problems* 48: 572-591.
- Portes, Alejandro. 2001. "Introduction: The Debate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1: 181-193.
- Portes, Alejandro and Josh DeWind. 2007.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New York: Berghahn Books.
- Schiller, Nina Glick, Linda G.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2.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Scott, S. 2006. "The Social Morphology of Skilled Migration: The Case of the British Middle Class in Par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1105-1129.
- Sørensen, Ninna Nyberg and Karen Fog Olwig. 2002. *Work and Migration: Life and Livelihoods in a Globalizing World*. London: Routledge.
- Stalford, H. 2005. "Parenting, Care and Mobility in the EU: Issues Facing Migrant Scientists." *Innovation* 18: 361-380.

- Manen, Max va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UNY Press.
- Vertovec, S. 1999.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2: 447-462.
- Waters, Johanna L. 2002. "Flexible Families? 'Astronaut' Households and the Experiences of Lone Mothers in Vancouver, British Columbia." *Social & Cultural Geography* 3: 117-133.
- _____. 2005. "Transnational Family Strategies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aspora." *Global Networks* 5: 359-377.
- _____. 2009. "Immigration, Transnationalism and Flexible Citizenship in Canada: An Examination of Ong's Thesis Ten Years On."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0(5):635-45.
- Zhou, M. 1998. "'Parachute Kids' in Southern California: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Chinese Children in Transnational Families." *Educational Policy* 12: 682-704.

(2014.05.20투고, 2014.05.23심사, 2014.05.26게재확정)

<Abstract>

Mobility and Early Study Abroad as Transnational Migration: Categorization of Korean ESA in Singapore through a Follow-up Longitudinal Case Study

Jeehun KIM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mobility patterns of Korean Early Study Abroad (ESA, hereafter) students in Singapore through a follow-up longitudinal case study, which was initially conducted about five years before current study. This study takes up transnational migration approach, focusing on family strategies and mobilization, which steer their mobility. Interviews with seven original families as well as seven more families additionally recruited in Singapore in 2012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using NVivo 9.

In short, this study found that transnational mobility is composed of mobilities at global, regional and local levels. There were four types of mobilities; continuation of stay in Singapore, move from a third county to Singapore, return to Korea, and, what this research calls, fluid mobility.

Examining the process of these mobilities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at least three factors (performance of children's schooling;

change of family circumstances; context of reception for both Singapore and Korea) as basic backgrounds. On this basis, the interplay between the context of receptions when aspirations for children's advancement by these transnational families made either facilitate or constrain their mobilities: contexts of Singapore and Korea may play a role of hurdle or trampoline. Also, local context of Singapore largely facilitates mobilities of Korean ESA families at both local and global levels.

Key words: Early Study Abroad, Educ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Mobility, Categorization, Follow-up Study, Longitudinal Study, Singapore, Qualitative Study.

